



강 북 구 의 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시사프리 4면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아카데미파크빌라 현장 방문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이백균 위원장, 이정식 부위원장, 이용균 위원)는 지난 8일 오전 최고고도지구내에 있는 연립주택인 아카데미파크빌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아카데미파크빌라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에 속해 있으므로 인해서 거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을 하려고 해

도 사업성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현장에는 연립주택 주민 30여명 함께했으며, 구청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 참석한 연립주택 주민들은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안에 있어 건축제한(건폐율 30%이하, 건축물의 높이 3층 이하로서 12m이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너무 많아 억울하니 인

근지역과 형평성에 맞추어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해 주고 최고고도지구도 더 완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구청과 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이 지역이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연립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내 고도지구 완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위해서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백균 위원장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강북구 관내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지금보다 고도제한 조건 등이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하고 자연경관지구 문제도 인근 지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최고고도특위 위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아카데미파크빌라 현장방문 실시

8일, 재산권행사에 제약따라 주민들 큰 피해 호소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이백균 위원장, 이정식 부위원장, 이용균 위원)는 6월8일 오전 11시 최고고도지구내에 있는 연립주택인 아카데미파크빌라(수유동 535-202 외 2필지)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아카데미파크빌라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에 속해 있으므로 인해서 거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현장에는 연립주택 주민 30여명 함께했으며, 구청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 참석한 연립주택 주민들은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안에 있어 건축제한(건폐율 30%이하, 건축물의 높이 3층 이하로서 12m 이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너무 많아 억울하니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추어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여 주고 최고고도지구도 더 완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구청과 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이 지역이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연립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내 고도지구 완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위해서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백균 위원장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강북구 관내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지금보다 고도제한 조건 등이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하고 자연경관지구 문제도 인근 지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고도지구완화특위, 아카데미파크빌라 현장 방문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너무 많아 억울해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춰줄 것 요구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이백균 위원장, 이정식 부위원장, 이용균 위원)는 6월 8일 오전 11시에 최고고도지구내에 있는 연립주택인 아카데미파크빌라(수유동 535-202 외 2필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 날 현장 방문은 아카데미파크빌라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에 속해 있으므로 인해서 거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 아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현장에는 연립주택 주민 30여명 함께했으며, 구청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 참석한 연립주택 주민들은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안에 있어 건축제한 (건폐율 30%이하, 건축물의 높이 3층 이하로



▲ 아카데미파크빌라를 방문해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고도완화 민원을 청취하고 있는 이백균 위원장과 위원들.

서 12m이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너무 많아 억울하니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추어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여 주고 최고고도지구도 더 완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구청과 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이 지역이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연립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고도지구 완화 및 자연경

관지구 해제를 위해서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백균 위원장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강북구 관내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지금보다 고도제한 조건 등이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하고 자연경관지구 문제도 인근 지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아카데미파크빌라 현장방문

고도지구 완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 위해 서울시에 건의 약속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가 아카데미파크빌라의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만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고도지구 완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이백균 위원장, 이정식 부위원장, 이용균 위원)는 6월8일 11시에 최고고도지구내에 있는 연립주택인 아카데미파크빌라(수유동 535-202 외 2필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아카데미파크빌라의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에 속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현장에는 연립주택 주민 30여명 함께했으며, 구청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연립주택 주민들은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안에 있어 건축제한 (건폐율 30%이하, 건축물의 높이 3층 이하로서 12m이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너무 많아 억울하다며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추어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고 최고고도지구도 더 완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구청과 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이 지역이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고도지구 완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위해서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백균 위원장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강북구 관내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지금보다 고도제한 조건 등이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하고 자연경관지구 문제도 인근 지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아카데미파크빌라 현장방문 실시

자연경관지구에 최고고도지구 이중 규제 재산권에 제약 억울해
특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형평성 맞게 꾸준한 문제 제기 약속



최고고도지구완화특위 위원들이 아카데미파크빌라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이백균 위원장, 이정식 부위원장, 이용균 위원)는 지난 8일 오전 11시 최고고도지구 내에 있는 연립주택인 아카데미파크빌라(수유동 535-202 외 2필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 날 찾은 아카데미파크빌라는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에 속해 있어서 거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인 곳.

특위 위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현장을 찾았고, 현장에는 연립

주택 주민 30여 명 함께했다. 강북구에서는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 참석한 연립주택 주민들은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구 안에 있어 건축제한(건폐율 30%이하, 건축물의 높이 3층 이하로서 12m이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너무 많아 억울하니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춰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해 주고 최고고도지구도 더 완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구청과 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이 지역이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축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연립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고도지구 완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위해서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백균 위원장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강북구 관내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지금보다 고도제한 조건 등이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하고 자연경관지구 문제도 인근 지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규 기자(donstopme@hanmail.net)